

인선승덕여자고등학교



홍백식 교장

'변화'를 통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

인선 남동구에서 지난 1986년 개교한 '승덕여고'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평범한 인문계 여고에 지나지 않았다.

승덕여고가 수시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던 것은 학생들의 수준과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고자한 학교장 및 교사들의 고민에서 그 출발이 있었다.

일정한 수준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와는 달리, 일반계고교로서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가 심한 이유(인선 중학 내신 0.2%부터 98%가 한 학년에 분포됨)로 총체적으로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학생들의 모의수능 성취도도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아서 수년 전부터 승덕여고의 3학년 교사들은 진학지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즉, 어렵더라도 교사들이 분담을 하여 대학별 입시 제도를 연구, 분석하고, 학생들을 각 입시와 관련된 카테고리 묶어서 '맞춤식 진학지도'의 틀을 만들고, 수능 학력 지표로 선발하는 정시보다는 공돌이 만큼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수시제도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다행히 대학입시의 대세가 정시에서 수시로 넘어가고 다양한 선발방법(입시사정관계, 학생부, 면접, 논술, 적성 등)이 등장하면서 승덕여고의 고민이 해결되고 매년 수시 진학률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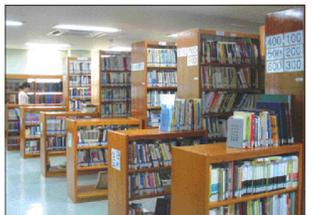
그 예로 2010 대입 수시에서 서울대 4명, 연대 8명, 고대 5명, 이대 10명 등 총 377명(복수 합격자 포함)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상덕 교감



◆ 자매결연을 맺은 캐나다리버사이드 고등학교의 학교 방문.



◆ 현대식 도서관.



◆ 승덕과학전



◆ 진로상담.

21C 선도할 여성 인재 양성 요람

'승덕여자고등학교' 승덕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인재양성의 요람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라는 말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배우면서 이해력과 분별력을 키우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능력을 기르며 살아가도록 교육한다.

승덕은 ▲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학교 ▲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학교 ▲ 한국 기독교학교의 모델이 되는 학교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승덕에는 최첨단의 완벽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1300여석 대형강당과 중강당, 과학관, 도서관, 생활관, 1천여명의 수용가능한 실내체육관 그리고 등교길을 즐겁게 해주는 시원한 물줄기의 분수대와 멀티상영관, 친구들의 우정을 키워주는 푸른초장 등의 다양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시설도 자랑거리다. 교실현대화작업을 갖추어 모든 교실이 천장식 냉난방시설과 빔프로젝트, 백목가구가 없는 친환경클린보드가 구비되어 있다.

올 3월부터 편의점이 교내에 개설되어 ATM은 물론 학생들의 교통카드충전도 가능하다. 또한 승덕만의 다양한 장학제도와 활발한 국제교류(캐나다, 일본, 중국)program을 가지고 있다.

승덕여자고등학교(교장 홍백식)는 1986년 개교하여 2009년 2월 제21회 졸업생을 포함하여 982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세계 최초로 암 전이를 억제하는 유전자 발견한 서울대 백성희 교수수를 비롯해 8회 졸업생인 정혜은 양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판사로 재임 중에 있는 등 여성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인선의 명문고로 성장하고 있다.

'승덕학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졌으며 고 흥석련 설립자는 '하나님 제일주의와 이웃 봉사의 정신'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자신의 자택 건축보다 우선해 1958년 서울 이문동에 동안교회를 개척하고, 1966년 인선 승덕학원을 설립했다.

승덕학원은 매년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데 노력했다.

맞춤식 진학지도

승덕은 입시전략부를 통해 맞춤식 진학지도를 통한 학력 높이기와 진학지도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승덕여고는 '이제 대학이 성적만으로는 시대를 지났다.'는 판단 아래 어떤 전략으로 목표 대학을 접근해가는 가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기초 다니엘반(80명)을 선발하고 또한 그 중에 12명의 비전반을 선발해 장기적으로 개인맞춤식 진학지도를 실시해 올해 지역내에서 수시로만 여학교 최고의 성적을 냈다. (서울대 1차 7명, 최종 4명, 연대 최종 7명, 고대 7명, 이대 8명 등 총 272명 합격)



◆ 수업장면.

학교교육에 관한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의 일생을 좌우하는 진학과 직결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상황도 대학입학 정책에 따라 수시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승덕여고는 대학입시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학지도의 방향을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개인 맞춤형 진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람됨을 중시하는 예지관 교육

부모님과 함께 (효교육)

예지관 교육은 1박 2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승덕여고만의 독특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이다.

그 중 '부모님과 함께' 시간은 부모님 앞에서 편지를 낭독하며 은혜를 되새기고,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자녀간의 관계회복과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

MBTI 프로그램

전문 인성검사 프로그램이다. 자기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가족과 친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인간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질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모색하는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차원 전면교육

자신이 가진 5가지 잠재적인 능력을 끌고루 길러주어 자신이 가진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승덕여고의 혁신적인 교육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참 실력자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1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랑실현 운동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는 활동으로 전 교직원과 학생들은 버스 한 번 안 타기, 아내바다 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일일차집 개최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교사가 매월 본인 희망에 의한 일정액을 기부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 의지를 고취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 승덕과학전

고등학교로는 최초로 지난 3년간(2003-2005년) 교육청지정 과학교육선도학교를 운영했으며 그 기간동안 다양한 과학활동을 추진해 지역 과학문화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는 과학교사를 위한 '과학교사실용연수' 3회, '과학수여학생을 위한 실험캠프' 1회, 교사용 '토리북' 15종 개발, 실험용영상 40종 제작, 실험키트 10종 개발, 학생용 'Workbook' 5종 개발 등 수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과학교육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지역 초·중·고 과학교사모임인 '인천과학사랑교사모임'(회원 60여명)의 연구, 개발모임이 매달 4회에 걸쳐 승덕여고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학교육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1991년도부터 시작되어 올해 16회를 맞이한 '승덕과학전'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진 행사로 소개되는 실험의 독창성과 과학성은 수준이 높기로 소문나 있다.

매년 5월 말경에 2일간 열리는 승덕과학전은 근래에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되고 있는 학생 과학 축전의 효시와 모델이기도 하다.

과학전은 약 4,50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과학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장이며 이를 통해 과학 문화는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원어민 교육과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영어 구사 능력 향상과 영어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영어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영어 회화 시간이 정규 수업 중에 포함되었다.

또한 'English Zone'에 따로 지정하여 그곳에서는 영어로만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수업은 수준별로 반편성을 해 학생들이 각각의 눈높이에 맞춰진 영어 공부의 기회를 가지도록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 학기 2회씩은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어영입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방과 후 클럽 활동으로 영어 연극, 국제교류동아리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은 축제와 자매학교 방문 때마다 국제화 시대의 영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영어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영어교사와 원어민교사들은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방학 중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영어 캠프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런 영어 학습의 다양화를 통하여 학교는 국제화, 세계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승덕여고는 다르다"

해외자매결연·사교육없는 학교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명문 사립인 Poole 고등학교와 교류를 통해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현지 가정에서의 1:1 홈스테이, 매년 상호 방문으로 일본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문화를 일본에 소개한 산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

또한, 여류방학을 이용해 캐나다 'Riverside Secondary School'의 학생들과 교환사업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캐나다 공인 ESC 자격의 영어 선생님과 함께 영어 수업은 물론 오후의 다양한 현장 학습으로 현지인의 가정에서 홈스테이 등 생활 영어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의 틴데일스콜과 'Tyndale Parent Controlled Christian 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류 프로그램은 오전에는 각 학교의 수업에 참여하여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오후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호주의 문화를 탐방하고 있다.

특히 홈스테이는 초청학교 학생의 집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그램과는 차별되어 있으며, 신뢰성 역시 높은 것이 특징이다.

16억 인구의 중국을 플라서는 21세기를 선도 할 수 있다.

승덕여고는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하는 중국의 교육 도시이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天津第2중학교'와 새롭게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

'승덕여자고등학교'는 지난 2009년 7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교육비 경감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에 선정됐다.



총지원액 3.5억 원으로 3차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승덕여고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는 정규수업, 방과후학교, 자기주도적 학습반, 예·체능 특기적성반 등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원(과의) 수요를 흡수하여 사교육비율 50% 절감시키고, 학부모 만족도 80%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교사가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의 경우, 성경 속 인물이나 사건의 이름을 활용한 '다니엘반'과 '출애굽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성경에 근거한 이 명칭들은 승덕의 비전(Vision)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학교'에 부합되며, 과거 명칭들에 비해 신선하고 재미있어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입시를 코앞에 둔 3학년은 1학기부터 '수리 및 언어 논술반'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외부 강사를 활용한 적성검사반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해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 중 '대학별 맞춤식 입시멘토링' 반은 입시전략부(부장 박권우)를 중심으로 각 대학별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좋아 앞으로 대학입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승덕여고 '사교육 없는 학교'는 현재 본교 교사와 외부 강사를 활용해 1학년 14강좌, 2학년 17강좌, 3학년 10강좌, 그리고 예·체능 4강좌를 개설하여, 총 45강좌를 운영 중이며, 학원 수요인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수준별 맞춤식 방과후학교'를 소수정예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들에게는 수강료를 '사교육 없는 학교' 예산에서 전액 지원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다.